



일본은행, 경기판단 하향조정과 기존 통화정책 유지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은행은 21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현행 0~0.1%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등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기준의 초저금리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.
 - 또한,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20조 엔 규모의 자산매입 기금과 35조 엔 규모의 신용대출 프로그램 등 통화완화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함.
 - 일본은행은 앞서 지난달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유럽 부채 위기로 수출 감소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을 우려하여 신용대출 프로그램과 기준금리 0~0.1%의 유지를 각각 결정한 바 있음.

- 일본은행 총재는 기존 통화정책의 유지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엔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 경제의 회복세도 지연되고 있다고 밝힘.
 - 일본 경제는 지난 3/4분기 6%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4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고 상승폭도 최근 6분기 중에서 가장 높았지만, 4/4분기 들어 수출 및 생산 반등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.
 - 이에 따라 지난 11월 정부 산하의 경제기획협회(EPA)는 4/4분기 성장률을 2.1%로 전망함.
 - 또한, 11월 수출은 엔고와 유럽 수출시장의 수요 위축 등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4.5% 감소하였고, 3.8% 감소한 10월 수출에 이어 두 달째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냄에 따라 예상보다 감소폭도 큼.

- 한편, 12월 21일 일본은행의 자금순환통계(3/4분기)에 따르면 2011년 9월 말 가계 금융자산 1,471.1조 엔 중 현·예금¹⁾ 자산이 823.7조 엔으로 그 비중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.
 - 이는 최근 주가 하락 및 엔고 등으로 가계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, 지진 보험금 지급 이후 동일본 지역의 현·예금 보유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.

(니혼게이지신문, 아사하신문, 요미우리신문, 마이니치신문 12/21, 뉴스 종합)

1) 현·예금은 일본은행권·화폐 등의 현금, 정부예금, 은행 등의 유동성·정기성·외화예금을 포함한 자산을 말함.